



## ACC에 대한 제안 세계성공회 일치·신앙·직제 상임위원회(IASCUFO)

세계성공회 일치·신앙·직제 상임위원회(IASCUFO)의 최근 연례 회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 사무총장 Josiah Idowu-Fearon 대주교가 5년 임기를 시작하며 IASCUFO를 만났을 때 했던 격려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세계성공회의 소명을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견고한 신학적 조사를 제공하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우리 회의에서 신임 사무총장 Bishop Anthony Poggo 주교는 위원회에 Lambeth Conference에서 나온 청원문(Lambeth Calls)을 신학적으로 숙고하고 세계성공회의 의사 결정 구조에 관한 해결되지 않은 질문과 연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2006년에 Archbishop Rowan Williams 대주교는 성공회 교회론의 형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성공회 신자들이 '단단히 중앙화되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단체들의 느슨한 연합도 아닌' 교회, 성경 낭독을 듣기 위해 모이는 일관된 공동체의 가족이 되고자 하며, 가능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님으로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전 세계적인 선교와 사역의 일치를 기념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회 교인들에게 ‘상통(Communion)’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이며, 그것은 우리의 많은 에큐메니컬 대화에서 보다 명확한 형태를 취한 비전입니다. ('Challenge and Hope of Being an Anglican Today'(오늘날 성공회 신자가 되는 것에 대한 도전과 희망), 2006년 6월 27일, 온라인에서 볼 수 있음).

이러한 에큐메니컬 사고 방식에 따라, 우리는 이 짧은 문헌에서 세계성공회를 위한 앞으로의 방안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안할 작업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도한 중앙화와 구속 없는 자율 사이에서 조정하면서 우리는 공동 세계의 상통 안에서의 현재 분열을 포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완전한 상통의 길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려는 공동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분쟁과 공동 생활의 손상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 분쟁 대처

세계성공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몇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지만 아직 일관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회 교회 간 ‘애로사항’은 여성 안수와 관련하여 처음 나타났으며, 세계성공회는 이를 질서 정연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Lambeth Conference와 ‘가장 높은 수준의 상통’이라는 문구를 만든 후속 위원회에서

그러했습니다. 몇몇 경우에, 관구 교회는 교회론적 실험으로 이해되어 온 분화(differentiation)의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성 관계와 교회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더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Lambeth Conference 1998 1.10의 가르침은 대부분의 성공회 신자들에게 중요하고 심지어 권위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하는 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업데이트되거나 완전히 삭제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교리적, 신학적, 석의적 불일치와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몇몇 교회는 2008년과 2022년 Lambeth Conference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다른 세계성공회 기구(Instruments of Communion)에도 불참했습니다. 한편, 다른 관구에서는 동성혼을 수용하기 위해 가르침과 관행을 변경했습니다.

세계성공회는 오늘날 일련의 즉석 결정과 전략에서 개발된 다양한 즉흥적 차별화에 직면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일부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동의와 합의를 요구하는 상통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1930년 Lambeth Conference의 결의안 49가 유명하게 추정된 것처럼 성공회가 공유하는 단일 신앙과 직제에 대해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한 공동체입니까?

IASCUFO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과 씨름하도록 요청받은 그룹으로서 세계성공회가 믿는 바를 다시 말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삶을 위한 충실하고 가시적인 표현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성공회 기독교인들과 관구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서로 동의하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에, IASCUFO는 세계성공회가 좋은 비동이의 교회학적 표현으로서 구조적 차별화의 질서 있는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선한 차별화(good differentiation)'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현재 달성할 수 없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양심적인 분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선한 차별화?

이 프로젝트는 그러한 분화의 필연성을 추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안치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고통스러운 분열 속에서 어느 편을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제는 우리 분열의 현실과 깊이를 인식하고 가능한 한 신학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부름 받은 화해의 힘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형성하신 '십자가로 한 몸'의 연합에 기초한 교회의 교리를 요구할 것입니다(엡 2). 세계성공회를 완성하거나 치유하려는 노력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관심은 광범위한 에큐메니컬 렌즈를 통해 성공회 소명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간의 분열과 분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속적인 연합과 관련하여 우리의 주장을 재구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충분히 자주, 우리는 사도 교회의 초기 합의에서 공통점을 발견해왔습니다. 혹은, 카톨릭 교회가 다양한 프란체스코회, 도미니크회, 예수회 강조점을 수용하는 것과 같이 뚜렷한 영적, 신학적 전통을 언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교단과 구조는

잠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공회의 기구(Instruments of Communion)들은 최근에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문제에 적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안의 여러 버전이 최근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선의의 사람들이 차이를 넘어 서로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Global South Fellowship of Anglican Churches의 제안된 언약적 구조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의 친교의 정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한 우리의 에큐메니컬 대화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과묵함이라는 성공회 전통에서 우리 제안의 선례를 발견합니다. Archbishop Michael Ramsey 대주교는 성공회 교회의 '불완전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성공회는 '자신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일부인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성공회는 '서투르고 어수선하며, 깔끔함과 논리를 방해한다'고 Ramsey는 서술했습니다. '성공회는 스스로를 "최고의 기독교 유형"으로 칭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보편 교회를 가리키기 위해 그 부서진 모습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 *Towards a Symphony of Instruments* 5.5.4, 온라인). 캔터베리를 중심으로 한 성공회 교회들의 상통이 더 넓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임시적 제안이라면, 우리의 불일치를 가능한 한 관대하게 수용할 수 있는 '선한 차별화'의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ACC 에게는 무엇이 요청되니까?

우리는 세계성공회협의회(ACC)이 다음 결의안을 고려하고 수락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계성공회 협의회(ACC)는

- 하나가 되라는 우리의 부르심의 중심으로서 세계성공회의 구조와 의사 결정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IASCUFO 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 가능한 한 최고 수준으로 함께 걷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에큐메니컬 대화를 통해 불일치를 인내와 정중함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 IASCUFO 에 이 작업을 진행하고 진행 상황을 세계성공회 기구(Instruments of Communion)에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